



전통연등 첫선 봉축위원회 전통등 연구모임이 재현한 전통등. 22일 조계사 경내에 내걸린 석류 수박 입월 법문 칠성 마늘등.

“밝은세상 만들자”

5월 11일
거리장엄



용등 국인들의 통일염원이 담긴 용등 (55cm x 85cm).

화 재현된 전통연등 보

역사의 뒤편에 묻혀있던 전통등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다. 봉축위원회 전통등 연구모임(회장 박창호)은 문헌상으로 전해오는 전통등 18종을 재현, 22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통등은 코끼리등, 탑등, 종등, 법륜등, 복어등, 복등을 비롯 수박등, 참외등, 마늘등, 석류등, 새우등, 왕등, 거북등, 원앙등이다. 이날 공개된 등은 전통등 연구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권스님들의 구술과 문헌, 사진자료 등을 바탕으로 5개월여의 산고 끝에 불교전통기법으로 옛모습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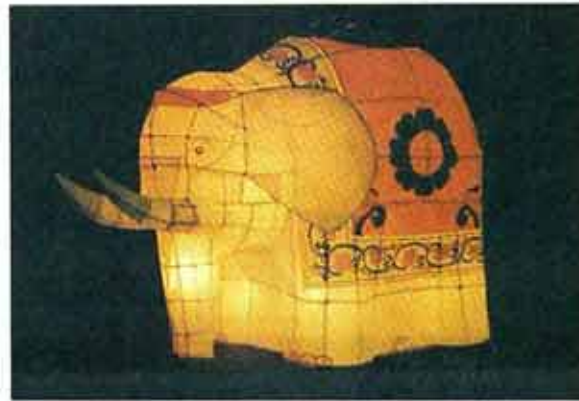
봉축위 전통등 연구모임은 부각등, 수복등, 태평등을 5월초까지 재현, 올해 부처님오신날 맞이 5월11일 거리축제(동대문~조계사)때 장엄등으로 일반에 선보인다. <관련인터뷰 4면>



종등 불교사물중 하나인 종등(60cm x 110cm).



봉황등 왕실에서 달았던 봉황등(150cm x 100cm).



코끼리등 불교상징 동물인 코끼리등(120cm x 85cm).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생명바쳐 불법심은 아들 <②>·골 <특별상>

병

이 재발한 복신이는 항암치료를 시작했고, 또다시 힘들고 고통스런 삶을 지탱해야 했다. 난 기도처를 찾아 다니며 밤샘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복신이 꼭 완치될 것이라고 믿었다. 만약 복신이 잘못된다면 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1996년 4월 어느날, 주치의 선생님께서 MRI 촬영결과를 확인하시고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언처럼 같은 말씀을 하셨다. 기도를 드리며 좌절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져 먹었지만 불안이 떨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난 직장을 그만두고 종다는 약, 종다는 기도처를 찾아 다녔다. 그러던중 다시 보리암으로 기도를 다녀왔다. 3일간 정성스레 기도를 하고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나 복신이는 날로 병이 악화됐다. 5월14일 갑자기 숨이 멎어 버리더니 죽음을 내락으로 한없이 받아들였다.

아내와 내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복신이를 보며 나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복신이는 괜찮아. 깨어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료진들이 물려와 응급조치를 하기 5분이

심장이 멈추었던 복신이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지, 복신이는 괜찮아, 부처님이 지켜주시는데 잘못될리가 없지' 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의사들은 한결같이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병원방담에서 기도를 하며 복신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때일같이 밤을 꼬박 새워가며 3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복신이의 호흡이 또 멎었다. 의사들이 이제 더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복신이는 소생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으니 고통을 덜어 관하게 해주는게 좋겠다고 했다. 기가 막혔다. 그후 또다시 무번씩이나 호흡이 멈추었고 의사들은 한결같이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신이는 그때마다 소생했다. 의사들은 그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

는 듯 놀라워 했다. 복신이의 병이 더욱 악화돼 입에서 피를 쏟기 시작했고, 그 순간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복신이에겐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의사를 말대로 복신을 관히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복신이는 다섯번의 소생을 거듭하다 생을 마감했다. 13세의 어린 나이로 다시는 못을 아무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

내가 만약 지홍스님의 말씀대로 교리공부를 하지 않고,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오직 복신이의 완치를 바는 기도만 해왔다면 나도 복신이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을지 모른다. 실사 남아있던 하더라도 나는 종교를 버렸을 것이고, 세상을

자주하고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복신이 내 곁을 떠난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허무에도 뜻밖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곧 죽을것만 같은 순간을 겪는다.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렇거나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건 부처님 가르침 덕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피안에 이르는 길을 믿고 윤회와 인과를 믿고 있기에 삶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다.

내가 삶을 포기했다거나 어려서 남겨진 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버지께 불심을 심어주고 간 복신이의 회생을 욕되게 하는 것일게다.

나는 지금 복신이 덕분에 모든 중생이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포교전단을 제작해 전방활동을 하고 있다. 장기기증도 했다. 부족함이 많은 중생이라 이웃을 위해 배울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듯 하지만 멈추지 않고 부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을 다 바칠 계획이다. 복신이를 생각하며 악해지는 믿음과 의지를 다진다. 복신이의 거룩한 회생을 결코 잊지 못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전에 다짐한다. 불제자로써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최성구 <서울 경서구 등촌동>



그림 · 이준석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대)737-8881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쉬습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부름과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 ·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 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우리 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 · 자비의 성
bf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 1 서용 권스님 (고불종림 방장) 백양사 주지 권스님의 존사스님의 처절한 구도성신을 가르침 받은 생명의 소리
- 2 서암 권스님 (전 조계종 중장) 불교학살교육원 유정암 교사가 권스님의 고난과 재해 형제 생애를 담은 초영
- 3 월미 권스님 (조계종 중장) 달인로 고수인 월씨가 무도사를 배경으로 권스님께 생애 묻는 이시대 재림의 발걸음
- 4 석주 권스님 (법보사 조실) 동화적가 생애를 묻게 권스님의 구도성신을 담겨있는 한들의 명상
- 5 원산 권스님 (불국선인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피연속을 묻게되는 생애가 곧 신서 되어 버린 권스님의 삶을 위해
- 6 상수 권스님 (법수선인 조실) 승가에 승안승교수와의 대담으로 권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한들의 명상
- 7 고승 권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불탄도 열매된 불자들에게 알려
- 8 비룡 권스님 (일정사 조실) 관음보살상은 저비스인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학살교육원 이기진 소장가 대담
- 9 원담 권스님 (덕수종림 방장) 관화가 황남세 불자가 특색의 발명이 담긴 권스님의 산경정지를 생황
- 10 일타 권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원사)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생애를 주는 법문을 전방상에게 필기를 대담가 진행

* 위 차례는 발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